

## 『새한글성경』 구약 번역 해설 — 레위기 —

김선종\*

### 1. 레위기 1:1

#### 1.1. 히브리어 본문, 한글,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번역본들 몇 가지 옮겨 적기

BHS <sup>5</sup>	וַיִּקְרָא אֶל-מֹשֶׁה וַיְדַבֵּר יְהוָה אֵלָיו מֵאֹהֶל מוֹעֵד לֵאמֹר:
『개역개정』	<u>여호와</u> 께서 <u>회막에서</u>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새번역』	<u>주님</u> 께서 모세를 <u>회막으로</u>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공동개정』	<u>야훼</u> 께서 <u>만남의 장막에서</u> 모세를 부르시고 말씀하셨다.
『새한글』	<u>그런 다음에</u> <u>여호와</u> 께서 모세를 부르셨다. 그러고는 그에게 <u>만남의 천막에서</u> 말씀하셨다.
ESV	<u>The LORD</u> called Moses and spoke to him <u>from the tent of meeting</u> , saying,
NET	<u>Then the LORD</u> called to Moses and spoke to him <u>from the Meeting Tent</u> :
ZB	<u>Und der HERR</u> rief Mose und sprach zu ihm <u>aus dem Zelt</u>

\* Université de Strasbourg에서 구약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음. 현재 정읍중앙교회 담임목사. sjhesed@naver.com.

**der Begegnung:**

- LB            **Und der HERR** rief Mose und redete mit ihm **aus der Stifshütte** und sprach:
- BB            **Der HERR** rief Mose zu sich und sprach mit ihm **vom Zelt der Begegnung** aus.
- TOB          **Le SEIGNEUR** appela Moïse et, **de la tente de la rencontre**, lui adressa la parole:
- LSG          **L'Éternel** appela Moïse; **de la tente d'assignation**, il lui parla et dit:

1.2. 『새한글』에서 새로운 점들

(1) 『새한글』은 기존의 우리말 성경에 없는 ‘그런 다음에’를 넣어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NET에서는 ‘then’으로, ZB와 LB에서는 ‘und’로 나타냅니다.

(2) 『새한글』은 『새번역』의 ‘주님’이나 『공동개정』의 ‘야훼’와 달리 『개역개정』의 전통을 따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우리말 성경의 ‘회막’(『개역개정』, 『새번역』)과 ‘만남의 장막’(『공동개정』) 대신에 ‘만남의 천막’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3) 『개역개정』이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새번역』이 ‘주님께서 회막으로’, 『공동개정』이 ‘야훼께서 만남의 장막에서’ 모세를 부르신 것으로 번역한 것을 『새한글』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만남의 천막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ESV, NET, ZB, LB, BB, LSG도 ‘만남의 천막에서’를 1하반절에 놓아 번역하고 있습니다.

1.3. 『새한글』에서 새롭게 번역한 까닭

(1) 『새한글』의 ‘그런 다음에’는 히브리어 성서에서 접속사 וְ(베)에 해당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그리고’나 ‘그러나’에 해당하는데, 이야기 단락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진 다음의 시간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실제로 히브리어 성서 레위기의 이름이 אֵלֶּיךָ(바이크라)로서 직역하면 ‘그런 다음에 그가 부르셨다.’입니다. 『새한글』에서는 레위기라는 책 제목 아래 괄호로 ‘부르셨다’로 히브리어 성서의 제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새한글』의 이러한 번역은 필수적인데, 출애굽기 25-31장에서 하나님이 만남의 천막을 만들라고 하신 명령을 35-40장에서 백성이 실행한 다음에 레위기 1:1이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에서 예배 장소로서의 만남의 천막을 만들게 하신 다음에, 레위기에서는 그 안에서 해야 할 예배의 내용과 방법을 알려 주십니다. 이러한 점에서 ‘그런 다음에’는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연결하는 기능을 합니다.

(2) 『새한글』은 기존 우리말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용한 ‘여호와’를 존중하여 연속성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다른 한 편, 기존의 ‘회막’이나 ‘만남의 장막’ 대신에 ‘만남의 천막’을 사용하여 이것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표현 אֹהֶל מוֹעֵד(오헬 모에드)를 오늘날 우리말을 사용하는 독자들이 더 쉽게 이해하도록 도와줍니다. ‘천막’은 히브리어 낱말의 의미를 살리면서 현대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3) 『새한글』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만남의 천막에서 말씀하셨다.’로 옮긴 것은 마소라 본문의 문장 구분을 따르는 것으로, 여기에서는 ‘만남의 천막에서’가 하반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새한글』은 마소라 본문에 따라 여호와께서 만남의 천막에서 모세를 부르셨기보다는 그곳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으로 보게 합니다.

#### 1.4. 『새한글』 레위기 1:1의 가르침

(1) 레위기 1:1은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백성을 해방해 주신 하나님이 제사 장소인 만남의 천막을 백성에게 만들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제사법을 모세에게 알려 주시는 장면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에게 자유를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십니다.

(2) 하나님은 하나님이 백성과 함께 머무실 천막을 짓게 하십니다(출 25:9). 그 천막은 하나님이 백성과 만나시는 ‘만남의 천막’입니다. 이 천막은 일부 이단이 신비적인 의미를 붙여 넣은 차원으로서의 ‘장막’이 아니고, 거친 들판에 찾아오셔서 백성 곁에 머무르고자 하시는 남루한 천막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백성과 함께 만남의 천막에 머무르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3) 하나님은 백성에게 만남의 천막을 짓게 하신 다음에 모세를 부르시고, 그곳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신만의 천막을 만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 2. 레위기 10:10

### 2.1. 히브리어 본문, 한글,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번역본들 몇 가지 옮겨 적기

BHS <sup>5</sup>	וְלִהְיֶיךָ בֵּין הַקֹּדֶשׁ וּבֵין הַחֹל וּבֵין הַטָּמֵא וּבֵין הַטְהוֹרִי:
『개역개정』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u>분별</u> 하며 <u>부정하고 정한 것을</u> <u>분별</u> 하고
『새번역』	너희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여야 하고, <u>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u> 하여야 한다.
『공동개정』	너희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u>분간</u> 할 때에도, <u>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간</u> 할 때에도 마시면 안 된다.
『새한글』	<u>그렇게 해야</u> 너희가 <u>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 깨끗하지 않은 것과 깨끗한 것을 구별</u> 할 수 있을 것이다.
ESV	You are to <u>distinguish between the holy and the common,</u> and <u>between the unclean and the clean,</u>
NET	as well as to <u>distinguish between the holy and the common,</u> and <u>between the unclean and the clean,</u>
ZB	<u>Und</u> ihr sollt <u>unterscheiden zwischen dem, was heilig ist, und dem, was nicht heilig ist, zwischen dem, was unrein ist, und dem, was rein ist.</u>
LB	Ihr sollt <u>unterscheiden, was heilig und unheilig, was unrein und rein ist,</u>
BB	<u>Denn</u> nur so könnt ihr <u>unterscheiden: was zum Heiligen gehört und was zum Alltag, was unrein macht und was rein ist.</u>
TOB	<u>C'est pour être à même de distinguer le sacré du profane, ce qui est impur de ce qui est pur,</u>
LSG	<u>afin que</u> vous puissiez <u>distinguer ce qui est saint de ce qui est profane, ce qui est impur de ce qui est pur,</u>

### 2.2. 『새한글』에서 새로운 점들

(1) 『새한글』은 『개역개정』이 ‘그리하여야’로 옮긴 히브리어 접속사 ו (브)를 ‘그렇게 해야’로 옮기고 있습니다. ZB는 ‘und’, BB는 ‘denn’, TOB와 LSG는 접속사가 가지고 있는 목적을 드러내기 위해 각각 ‘c’est pour’와

‘afin que’로 번역합니다.

(2) 『새한글』에서는 기존 우리말 성경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으로 번역한 것을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으로, ‘부정하고 정한 것’을 ‘깨끗하지 않은 것과 깨끗한 것’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공동개정』은 ‘정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 번역하고 있는데, 마소라 본문에 있는 낱말의 순서를 바꾸어 번역하고 있습니다.

(3) 『개역개정』의 ‘분별하다’, 『새번역』의 ‘구별하다’, 『공동개정』의 ‘분간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동사  $\text{בָּדַל}$ (바달)을 기존의 우리말 성경이 이러한 동사를 작은 글자로 표시하거나(『개역개정』) 두 번 옮기고 있지만(『새번역』, 『공동개정』), 『새한글』은 ‘구별하다’로 한 번 사용하여 옮기고 있습니다.

### 2.3. 『새한글』에서 새롭게 번역한 까닭

(1) 『새한글』이 ‘그렇게 해야’를 넣어 번역한 것은 레위기 10:9에서 하나님이 제사장들이 만남의 천막에 들어올 때 포도주나 맥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신 이유를 제대로 드러내기 위한 번역입니다. 참고로 『새한글』은 고고학 연구에 따라 기존의 ‘독주’를 ‘맥주’로 옮기고 있습니다.

(2) 기존의 우리말 성경이 ‘거룩하고 속된 것’이라고 번역한 것을 『새한글』은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거룩’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낱말  $\text{קָדָשׁ}$ (코데쉬)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일차적인 뜻을 지니기 때문이고, ‘속되다’는 『표준국어대사전』의 정의에 따르면 ‘고상하지 못하고 천하다.’로서 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낱말  $\text{טָמֵא}$ (홀)의 본래의 뜻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ESV와 NET의 ‘common’과 BB의 ‘Alltag’이 ‘일상의, 보통의, 세상의’를 가리키는 히브리어 낱말  $\text{טָמֵא}$ (홀)의 뜻을 바르게 반영합니다. 계속해서 『새한글』은 ‘부정하고 정한 것’을 ‘깨끗하지 않은 것과 깨끗한 것’으로 옮기는데, 한자어 ‘부정(不淨)’하고 ‘정(淨)’한 것을 우리말로 옮긴 것에 해당합니다. 레위기에서 부정하다고 할 때, 자칫 잘못하여 ‘올바르지 아니하거나 옳지 못하다.’를 뜻하는 한자어 ‘부정(不正)’함을 떠올릴 수 있기도 합니다. 『새한글』은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 ‘깨끗한 것과 깨끗하지 않은 것’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성경이 주는 가르침을 오늘날 언어로 보다 명확하게 전달하려는 의도를 보여 줍니다.

(3) 기존의 우리말 성경에서 ‘분별하다’나 ‘구별하다’나 ‘분간하다’를 두 번 사용하여 마치 마소라 사본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독자들이 생각할

수 있게 하지만, 마소라 본문에서는 동사가 한 번 나오고 있는 점에서 『새한글』이 원문을 제대로 반영하여 옳고 있습니다.

## 2.4. 『새한글』 레위기 10:10의 가르침

(1) 레위기 10:10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포도주나 맥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는 것은 단지 음주에 관한 가르침이 아니라, 정신이 혼탁해져서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 깨끗하지 않은 것과 깨끗한 것을 구별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맑은 정신과 영혼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2) 거룩함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세상에 속한 것은 천한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 속하는 것입니다. 또한 히브리어 개념에 따르면 깨끗한 것은 생명에 이바지하는 것, 깨끗하지 않은 것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거룩한 백성으로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하겠습니까.

(3) ‘구별하다’에 대항하는 히브리어 동사 **בָּדַל**(바달)은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빛과 어둠 등을 나누실 때 사용된 동사와 같은 동사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혼란한 세상에서 평화로 질서를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도 참과 거짓을 분별하며 살아야 합니다.

## 3. 레위기 12:6

### 3.1. 히브리어 본문, 한글,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번역본들 몇 가지 옮겨 적기

BHS <sup>5</sup>	וּבְמִלֵּאת יְמֵי טְהוּרָהּ לְבֵן אֹר לְבַת תִּבְיָא כִּבְשׁ בֶּן־שָׁנָתוֹ לְעֹלָה וּבְיָוֵנָה אוֹתָר לְחֻטָּאת אֶל־פֶּתַח אֹהֶל־מוֹעֵד אֶל־הַכֹּהֵן׃
『개역개정』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b>여인</b> 은 <b>번제</b> 를 위하여 일 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b>속죄</b> <b>제</b> 를 위하여 짐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 문 제 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새번역』	아들을 낳았든지 딸을 낳았든지, 몸이 정결하여지는 기간이 끝나면, <b>산모</b> 는 <b>번제</b> 로 바칠 일 년 된 어린 양

- 한 마리와, **속죄제**로 바칠 집비둘기 새끼 한 마리나 산비둘기 한 마리를, 회막 어귀로 가져 가서 제사장에 게 바쳐야 한다.
- 『공동개정』 기간이 차서 몸이 깨끗하게 되면 아들을 낳았든지 딸을 낳았든지 **번제**로 드릴 일 년 된 양 한 마리와 **속죄제물**로 드릴 집비둘기나 산비둘기 한 마리를 만남의 장막 문간으로 가져다가 사제에게 드려야 한다.
- 『새한글』 아들을 낳았든 딸을 낳았든 깨끗해지는 기간이 차면, **어머니**는 만남의 천막 입구의 제사장에게로 제물을 가져가야 한다. **다태우는제물(번제물)**로는 1년 된 어린 숫양을, **깨끗하게하는제물(속죄제물)**로는 집비둘기 새끼나 멧비둘기를 가져가야 한다.
- ESV And when the days of her purifying are completed, whether for a son or for a daughter, **she** shall bring to the priest at the entrance of the tent of meeting a lamb a year old for **a burnt offering**, and a pigeon or a turtledove for **a sin offering**.
- NET When the days of her purification are completed for a son or for a daughter, **she** must bring a one-year-old lamb for **a burnt offering** and a young pigeon or turtledove for **a sin offering** to the entrance of the Meeting Tent, to the priest.
- ZB Und wenn die Tage ihrer Reinigung vollendet sind, bei einem Sohn oder einer Tochter, soll **sie** dem Priester ein einjähriges Lamm als **Brandopfer** und eine Taube oder eine Turteltaube als **Sündopfer** an den Eingang des Zelts der Begegnung bringen.
- LB Und wenn die Tage ihrer Reinigung für den Sohn oder für die Tochter um sind, soll **sie** dem Priester ein einjähriges Lamm bringen zum **Brandopfer** und eine Taube oder Turteltaube zum **Sündopfer** vor den Eingang der Stiftshütte.
- BB Ist die Zeit der Reinigung vorbei, soll die **Frau** ein Opfer darbringen. Es ist dabei egal, ob sie einen Sohn oder eine Tochter bekommen hat. Sie soll ihr Opfer zu einem Priester bringen, an den Eingang zum Zelt der Begegnung: ein einjähriges Lamm als **Brandopfer** und eine Felsentaube oder Turteltaube als **Sündopfer**.

TOB	lorsque s'achève son temps de purification, pour un fils ou pour une fille, <b>elle</b> amène au prêtre, à l'entrée de la tente de la rencontre, un agneau âgé d'un an, pour <b>un holocauste</b> , et un pigeon ou une tourterelle, servant à <b>un sacrifice pour le péché</b> ;
LSG	Lorsque les jours de sa purification seront accomplis, pour un fils ou pour une fille, <b>elle</b> apportera au sacrificateur, à l'entrée de la tente d'assignation, un agneau d'un an pour <b>l'holocauste</b> , et un jeune pigeon ou une tourterelle pour <b>le sacrifice d'expiation</b> .

### 3.2. 『새한글』에서 새로운 점들

(1) 레위기 12장은 레위기 11-15장의 정결법 안에 속한 본문으로 아이를 낳은 여성이 깨끗해지는 기간이 끝나면 제물을 제사장에게 바쳐야 하는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마소라 본문에서는 12:2에서 ‘여자’를 가리키는 히브리어 낱말 נִשְׂרָא(닛샤)가 나오고, 이 낱말을 기존 우리말 성경에서는 ‘여인’이나 ‘여성’으로 옮기고 있는데, 『새한글』은 12:2에서 ‘여자’로 옮긴 다음에 3절부터는 비록 마소라 본문에 낱말이 나오지 않더라도 문맥에 따라 행위를 하는 주어를 밝힐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어머니’로 번역합니다.

(2) 기존의 우리말 성경이 ‘번제’나 ‘번제물’로 번역한 것을 『새한글』은 ‘다태우는제물(번제물)’로 옮기면서 괄호 안에 기존의 번역어를 소개하여 제사와 절기와 관련된 새로운 번역어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이해를 돕게 합니다. 그 밖에 『새한글』은 ‘소제, 곡식제물, 곡식예물’은 ‘곡식제물(소제물)’, ‘화목제, 화목제사, 친교제’는 ‘평화의희생제물(화목제물)’, ‘속죄제’는 ‘죄없애는제물(속죄제물)’, ‘속건제, 면제죄’는 ‘잘못없애는제물(속건제물)’, ‘거제물’은 ‘높이드는제물(거제물)’, ‘요제물’은 ‘흔드는제물(요제물)’로 옮깁니다.

(3) 『새한글』은 기존의 우리말 성경이 여자가 아이를 낳은 다음에 속죄제물을 드려야 한다는 번역 대신에 ‘깨끗하게하는제물(속죄제물)’을 드려야 하는 것으로 번역합니다. ‘깨끗하게하는제물’이라는 새로운 번역어를 제시하지만, 이것에 해당하는 원어를 밝히기 위해 ‘속죄제물’을 괄호 안에 넣고 있습니다.



### 3.3. 『새한글』에서 새롭게 번역한 까닭

(1) 『새한글』은 ‘깨끗해지는 기간’, ‘어머니’ 등과 같이 문맥에 따른 상황의 의미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번역하여 독자가 글을 읽으며 흐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2) 『새한글』은 기존의 제사 관련 전문용어를 새롭게 번역하여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낯선 제사 용어를 이해하도록 도와줍니다. 특별히 번제나 소제 등의 제사 용어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일반인은 사용하지 않는 낱말로서 그리스도인만 알고 있는 말을 탈피하여 보다 친근한 표현을 제시하려고 시도합니다. 『새한글』은 전통적인 성경 번역에 비해 보다 직접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제사의 규정과 제물의 의미를 독자에게 알기 쉽게 전달합니다.

(3) 구약 이스라엘의 제사 제도를 모르는 독자들은 아이를 낳은 어머니가 감사제물이 아니라 속죄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이해하기 힘듭니다. 속죄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낱말  $\text{חַטָּאת}$ (하타아트)는 단지 죄를 없애는 기능을 하는 것만이 아니라, 죄와 상관없는 더러움을 씻는 기능을 단다는 사실은 제사 신학에서는 잘 알려져 있습니다.<sup>1)</sup> 그러한 의미에서 아이를 낳은 산모가 아이를 낳은 것이 죄가 아니라 피를 흘려 죽음에 노출되었다는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깨끗하게하는제물’을 바치는 것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 3.4. 『새한글』 레위기 12:6의 가르침

(1) 레위기 12:6은 아이를 낳은 산모가 깨끗해지는 기간이 지난 다음에 제물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제물인 ‘다태우는제물(번제물)’과 함께 ‘깨끗하게하는제물(속죄제물)’을 드려야 할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산모가 아이를 낳음으로 깨끗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피를 흘려 죽음에 노출된 사실을 말합니다. ‘번성하여 불어나라’(창 1:28[『새한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이 땅의 모든 어머니는 죽음에 노출되는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2) 성경 원어를 바르게 번역하지 않을 경우, 마치 여자가 아이를 낳은 것을 죄로 이해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레위기 12장의 산모 정결법이 아이를 낳은 여성을 깨끗하지 않게 여겨 거룩한 장소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 것이 아니라, 죽음에 노출된 것에서 어서 빨리 생명을 회복하게 한 것으로 이

1) J. Milgrom, *Leviticus 1-16*, AB 3 (New York: Doubleday, 1991), 289는 ‘속죄제물’을 ‘깨끗하게하는제물(purification offering)’로 옮깁니다.

해해야 합니다. 어느 프랑스 해설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깨끗하지 않은 기간 동안 여성이 격리된 것이 아니라, 일종의 출산 휴가를 가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sup>2)</sup>

#### 4. 레위기 16:21

##### 4.1. 히브리어 본문, 한글,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번역본들 몇 가지 옮겨 적기

BHS <sup>5</sup>	<p>וְסָמַךְ אֶהָרֶן אֶת־שְׂתֵי (יָדָיו) [יָדָיו] עַל רֹאשׁ הַשְּׂעִיר הַחַי  וְהִתְוַדָּה עָלָיו אֶת־כָּל־עֲוֹנוֹת בְּנֵי יִשְׂרָאֵל וְאֶת־כָּל־פְּשָׁעֵיהֶם  לְכָל־חַטָּאתָם וַיִּתֵּן אֹתָם עַל־רֹאשׁ הַשְּׂעִיר וְשָׁלַח בְּיַד־אִישׁ  עֹמֵי הַמִּזְבֵּחַ:</p>
『개역개정』	<p>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 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b>불의</b>와 그 범한 모든 <b>죄</b>를 아뢰고 그 <b>죄</b>를 염소의 머리에 <b>두어 미리 정한 사람</b>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p>
『새번역』	<p>살아 있는 그 숫염소의 머리 위에 두 손을 얹고, 이스라엘 자손이 저지른 온갖 <b>악행</b>과 온갖 <b>반역</b> 행위와 온갖 <b>죄</b>를 다 자백하고 나서, 그 모든 죄를 그 숫염소의 머리에 <b>씌운다</b>. 그런 다음에, <b>기다리고 있는 사람</b>의 손에 맡겨, 그 숫염소를 빈 들로 내보내야 한다.</p>
『공동개정』	<p>아론은 그 살려둔 염소 머리 위에 두 손을 얹고 이스라엘 백성이 저지른 온갖 <b>잘못</b>과 일부러 거역한 온갖 <b>죄악</b>을 고백하고는 그 모든 <b>죄</b>를 그 염소 머리에 <b>씌우고 대기하고 있던 사람</b>을 시켜 그 염소를 빈들로 내보내야 한다.</p>
『새한글』	<p>아론은 살아 있는 숫염소의 머리에 두 손을 얹어야 한다. 그러고는 그 위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b>허물</b>과 <b>잘못</b>과 <b>죄</b>를 다 고백해야 한다. 숫염소의 머리 위로 모든 것을 <b>옮겨 놓아야 한다</b>. 그러고는 <b>기다리게 해 놓았던 사람</b>을 시켜 숫염소를 광야로 내보내야 한다.</p>
ESV	<p>And Aaron shall lay both his hands on the head of the live goat, and confess over it all the <b>iniquities</b> of the</p>

2) 김선중, “<서평> Ze Bible”, 「성경원문연구」 35 (2014), 364.

- people of Israel, and all their **transgressions**, all their **sins**. And he shall **put** them on the head of the goat and send it away into the wilderness by the hand of **a man who is in readiness**.
- NET Aaron is to lay his two hands on the head of the live goat and confess over it all the **iniquities** of the Israelites and all their **transgressions** in regard to all their **sins**, and thus he is to **put** them on the head of the goat and send it away into the desert by the hand of **a man standing ready**.
- ZB Und Aaron soll beide Hände auf den Kopf des lebenden Bocks legen und über ihm alle **Schuld** der Israeliten und all ihre **Vergehen** bekennen, mit denen sie sich **versündigt** haben. Und er soll sie **auf** den Kopf des Bocks **legen** und ihn durch **einen Mann, der bereitsteht**, in die Wüste treiben lassen.
- LB Dann soll Aaron seine beiden Hände auf dessen Kopf legen und über ihm bekennen alle **Missetat** der Israeliten und alle ihre **Übertretungen**, mit denen sie sich **versündigt** haben, und soll sie dem Bock **auf** den Kopf **legen** und ihn durch **einen Mann, der bereitsteht**, in die Wüste bringen lassen,
- BB Aaron soll seine Hände auf den Kopf des Tieres legen. Dabei soll er alle **Schuld** der Israeliten bekennen und all ihre **Verbrechen** und **Sünden** nennen. So **überträgt** er all diese Schuld auf das Tier. Neben Aaron soll **ein Mann bereitstehen**, um den Ziegenbock anschließend in die Wüste zu treiben.
- TOB Aaron impose les deux mains sur la tête du bouc vivant: il confesse sur lui toutes les **fautes** des fils d'Israël et toutes leurs **révoltes**, c'est-à-dire tous leurs **péchés**, et il les **met** sur la tête du bouc; puis il l'envoie au désert sous la conduite d'**un homme tout prêt**.
- LSG Aaron posera ses deux mains sur la tête du bouc vivant, et il confessera sur lui toutes les **iniquités** des enfants d'Israël et toutes les **transgressions** par lesquelles ils **ont péché**; il **les mettra** sur la tête du bouc, puis il le chassera dans le désert, à l'aide d'**un homme qui aura cette charge**.

## 4.2. 『새한글』에서 새로운 점들

(1) 『개역개정』이 ‘불의’, ‘죄’, ‘죄’, 『새번역』이 ‘악행’, ‘반역’, ‘죄’, 『공동개정』이 ‘잘못’, ‘죄악’, ‘죄’로 번역한 것을 『새한글』은 ‘허물’, ‘잘못’, ‘죄’로 옮기고 있습니다. 이 낱말들은 각각 히브리어 חַטָּאת(아본), פְּשָׁע(페샤), חַטָּאת(헛타아트)를 옮긴 것입니다.

(2) 기존의 우리말 성경에서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다’(『개역개정』) 또는 ‘씩우다’(『새번역』, 『공동개정』)로 번역한 것을 『새한글』은 ‘(모든 것을) 옮겨 놓아야 한다.’로 옮기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동사는 נָטַח(나탄)으로 BB가 ‘übertragen’을 번역어로 선택한 것과 비슷합니다.

(3) 『개역개정』과 『새번역』과 『공동개정』이 각각 ‘미리 정한 사람’, ‘기다리고 있는 사람’, ‘대기하고 있던 사람’으로 옮긴 것을 『새한글』은 ‘기다리게 해 놓았던 사람’으로 번역합니다. LSG가 ‘un homme qui aura cette charge’로 번역한 것이 이러한 의미를 반영합니다.

## 4.3. 『새한글』에서 새롭게 번역한 까닭

(1) 구약성서에는 죄를 나타내는 여러 이미지와 그에 따른 낱말이 있습니다. 『새한글』이 ‘허물’로 옮긴 חַטָּאת(아본)은 ‘짐’과 ‘무게’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잘못’으로 옮긴 פְּשָׁע(페샤)는 의도적인 반역의 의미, 또한 ‘죄’로 옮긴 חַטָּאת(헛타아트)는 과녁에서 벗어난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용서에 대한 낱말도 ‘덮다’, ‘없애다’, ‘씻다’ 등의 몇 가지 동사가 있습니다.<sup>3)</sup> 죄와 관련된 낱말들을 『개역개정』이 ‘불의’, ‘죄’, ‘죄’로 옮겨 마치 마지막 두 개의 낱말이 같은 히브리어 낱말에 해당하는 것으로 오해하게 하지만, 죄와 관련된 세 가지 낱말은 대속죄일에 해결할 수 있는 죄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추상적인 관념으로 이해될 수 있는 죄의 개념을 『새한글』은 신자들이 저지를 수 있는 ‘허물’, ‘잘못’, ‘죄’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일상에서 저지를 수 있는 죄를 돌아보게 합니다.

(2) 『새한글』이 ‘옮겨 놓다’로 번역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지른 모든 종류의 죄를 숫염소에게 옮기는 행동을 구체적으로 보여 줍니다. 이것은 사람이 지은 죄를 단지 다른 짐승에게 두거나 씌우는 것을 넘어 죄를 전가하는 과정을 시각적으로 상상하게 하는 데 도움을 주는 번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사람의 죄를 옮겨 놓은 숫염소를 광야로 내보낼 사람이 필요한데, 이

3) 김선중, “<서평> *Sin: a History*”, 「성경원문연구」 28 (2011), 279-288.

사람은 기존의 우리말 성경이 번역하듯이 단지 ‘미리 정한 사람’, ‘기다리고 있는 사람’, ‘대기하고 있던 사람’이 아니라, ‘기다리게 해 놓았던 사람’으로 번역하여 숫염소를 내보내도록 계획하고 의도한 행위를 더 분명하게 보여 줍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표현은 עֲתִי שֵׁאִי(이쉬 잇티)로서 עֲתִי(잇티)는 구약성서에서 한 번밖에 나오지 않는 낱말입니다. 아마 이 사람은 광야 길에 정통한 사람일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sup>4)</sup>

#### 4.4. 『새한글』 레위기 16:21의 가르침

(1) 『새한글』은 ‘허물’, ‘잘못’, ‘죄’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사람이 저지르는 실수의 차원에서의 불완전함과 의도적으로 저지르는 죄의 차원에서의 악함을 보여 줍니다. 이것으로써 본문을 읽는 독자가 자신의 죄를 더 실감나게 고백하도록 돕고, 죄 용서는 분명하게 죄를 자각하고 고백하며 회개하는 과정을 통해 가능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합니다.

(2) ‘모든 것을 옮겨 놓아야 한다.’는 『새한글』의 표현에서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저지른 죄가 단순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숫염소에게 옮겨져 대속을 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구약성서의 속죄 의식에서 죄의 전가와 용서의 깊이를 상징적으로 보여 줍니다. 이 과정은 기록본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람과 피조 세계의 죄와 고난을 대신 짊어지신 사건을 보게 합니다.

(3) 『새한글』의 ‘기다리게 해 놓았던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 우연히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을 통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준비되고 훈련받은 사람을 통해 이루어야 한다는 신앙의 의미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구원이 값싼 은혜가 아니라, 사람들의 준비와 순종을 통해 이루어짐을 보여 줍니다.

### 5. 레위기 25:10

#### 5.1. 히브리어 본문, 한글,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번역본들 몇 가지 옮겨 적기

BHS<sup>5</sup>

וְקִרְשֵׁתָם אֵת שְׁנַת הַחֲמִשִּׁים שָׁנָה וּקְרָאתָם דְּרוֹר בְּאֶרֶץ

4) J. Milgrom, *Leviticus 1-16*, 1045.

לְכֹל־שְׁבִיבָהּ יִזְבֵּל הוּא תְהִיָּה לְכֶם וּשְׁבִיבָם אִישׁ אֶל־אֶחָיו  
וְאִישׁ אֶל־שֹׁפְחוֹ תִשָּׁבֵן:

- 『개역개정』 너희는 오십 년제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 『새번역』 너희는 오십 년이 시작되는 이 해를 거룩한 해로 정하고, 전국의 모든 거민에게 자유를 선포하여라. 이 해는 너희가 희년으로 누릴 해이다. 이 해는 너희가 유산 곧 분배받은 땅으로 돌아가는 해이며, 저마다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해이다.
- 『공동개정』 오십 년이 되는 이 해를 너희는 거룩한 해로 정하고 너희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해방을 선포하여라. 이 해는 너희가 희년으로 지킬 해이다. 저마다 제 소유지를 찾아 자기 지파에게로 돌아가야 한다.
- 『새한글』 너희는 50년째 되는 해를 거룩하게 하고, 너희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해방을 널리 알려라. 이것은 너희에게 해방의해(희년)이다. 너희는 저마다 자기 땅으로 돌아갈 수 있고, 저마다 자기 가문에게로 돌아갈 수 있다.
- ESV And you shall consecrate the fiftieth year, and proclaim liberty throughout the land to all its inhabitants. It shall be a jubilee for you, when each of you shall return to his property and each of you shall return to his clan.
- NET So you must consecrate the fiftieth year, and you must proclaim a release in the land for all its inhabitants. That year will be your Jubilee; each one of you must return to his property, and each one of you must return to his clan.
- ZB Und ihr sollt das fünzigste Jahr für heilig erklären und eine Freilassung ausrufen im Land für all seine Bewohner. Es soll für euch ein Jobeljahr sein, und jeder von euch soll wieder zu seinem Besitz kommen, und jeder soll zurückkehren zu seiner Sippe.
- LB Und ihr sollt das fünzigste Jahr heiligen und sollt eine Freilassung ausrufen im Lande für alle, die darin wohnen; es soll ein Erlassjahr für euch sein. Da soll ein jeder bei euch wieder zu seinem Besitz und zu seiner Sippe kommen.
- BB Dieses Jahr soll für euch heilig sein. Das heißt: Ruft die

TOB	<p><b>Freilassung</b> aller Sklaven im Land aus! Denn es ist für euch ein <b>Jubeljahr</b>. Jeder <b>soll</b> zu seiner <b>Familie zurückkehren dürfen</b> und dort seinen Besitz <b>zurückerhalten</b>.</p> <p>vous déclarerez sainte <b>la cinquantième année</b> et vous <b>proclamerez</b> dans le pays la <b>libération</b> pour tous les habitants; ce sera pour vous un <b>jubilé</b>; chacun de vous <b>retournera</b> dans sa propriété, et chacun de vous <b>retournera</b> dans son <b>clan</b>.</p>
LSG	<p>Et vous sanctifierez <b>la cinquantième année</b>, vous <b>publierez la liberté</b> dans le pays pour tous ses habitants: ce sera pour vous le <b>jubilé</b>; chacun de vous <b>retournera</b> dans sa propriété, et chacun de vous <b>retournera</b> dans sa <b>famille</b>.</p>

## 5.2. 『새한글』에서 새로운 점들

(1) 『개역개정』이 ‘자유를 공포하라’, 『새번역』이 ‘자유를 선포하여라.’, 『공동개정』이 ‘해방을 선포하여라.’로 옮긴 것을 『새한글』은 ‘해방을 널리 알리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해방’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낱말 דָּרוֹר(드로르)를 ‘자유’에 해당하는 ESV의 ‘liberty’, LSG의 ‘liberté’보다는 ‘해방’에 해당하는 NET의 ‘release’, ZB와 LB와 BB의 ‘Freilassung’, TOB의 ‘libération’에 더 가까운 번역입니다.

(2) 『새한글』은 기존의 우리말 성경이 모두 ‘희년’으로 번역하고 있는 것을 ‘해방의 해(희년)’로 옮기고 있습니다.

(3) 『개역개정』과 『새번역』은 가난해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방의 해(희년)에 ‘가족’에게로 돌아가야 한다고 번역하고 『공동개정』은 ‘지파’에게로 돌아가야 한다고 번역하는 반면에, 『새한글』은 ‘가문’에게로 돌아갈 수 있다고 번역합니다. ESV와 NET와 TOB의 ‘clan’, ZB와 LB의 ‘Sippe’가 이것에 해당합니다.

## 5.3. 『새한글』에서 새롭게 번역한 까닭

(1) 『새한글』은 ‘해방을 널리 알리라.’로 번역하여 히브리어 낱말 דָּרוֹר(드로르)를 단순히 ‘외부적인 구속이나 무엇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표준국어대사전』)의 의미로서 자유를 넘어 더 적극적으로 ‘구속이나 억압, 부담 따위에서 벗어나게 함’(『표준국어대사전』)이

라는 해방을 뜻하는 것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우리말 성경에서 ‘선포하다’ 또는 ‘공포하다’를 거기에 해당하는 우리말 ‘널리 알리다’로 옮겨 『새한글』의 번역 취지를 살리고 있습니다.

(2) ‘희년’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낱말  $\text{יובל}$ (요벨)은 ‘뿔나팔’이라는 뜻으로, VUL이 ‘Jubilare’로 번역한 것이 영어의 ‘jubilee’, 독일어의 ‘Jobeljahr’(ZB)나 ‘Jubeljahr’(BB), 프랑스어의 ‘jubilé’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희년’(禧年)에서 ‘희’는 기쁨을 나타내는 희(喜)가 아닌 복을 나타내는 희(禧)로 라틴어 어원이 가지고 있는 뜻과 같지 않습니다. 『새한글』은  $\text{יובל}$ (요벨)을 ‘해방의 해(희년)’로 옮기는데, 레위기 25장의 50년째 해가 가지고 있는 해방의 의미를 밝히려고 시도합니다. LB의 ‘Erlaussjahr’가 이와 비슷한 번역 시도에 해당합니다.

(3) 고대 이스라엘의 가족 단위는 큰 단위로부터 작은 단위까지 ‘지파( $\text{שֵׁבִיט}$ )’, ‘가문( $\text{בֵּית אָב}$ )’, ‘가족( $\text{בֵּית אָב}$ )’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레위기 25:10에 있는 단위는 ‘가문’에 해당합니다. 『개역개정』과 『새번역』처럼 ‘가족’으로 번역하면, 오늘날과 같은 핵가족을 연상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우리말 성경은 돌아가야 하는 것으로 읽게 하지만, 『새한글』은 돌아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 줍니다.

#### 5.4. 『새한글』 레위기 25:10의 가르침

(1) 하나님은 정치적인 억압과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해방하십니다. 또한 해방을 널리 알리게 하셔서 해방의 해는 단순히 개인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실현해야 하는 원리임을 말해 줍니다.

(2) 하나님은 50년마다 해방의 해를 갖게 하셔서 사람과 피조 세계가 끊임없이 고통받는 것을 끊어 주십니다. 구약 주변 세계에서 임금이 왕위에 오를 때 자의적으로 사면한 것과 달리 하나님은 법과 제도를 통하여 타락한 세상을 원상태로 회복시키십니다.

(3) 하나님이 노예의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자기 가문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하신 것은 단지 경제적 회복이 아니라, 가족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방의 해는 재산 회복을 넘어 공동체의 관계를 다시 본래의 상태로 되돌리는 역할을 합니다.



<주제어>(Keywords)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 깨끗하게하는제물(속죄제물), 허물/잘못/죄, 해방의 해.

then, the godly and the common, purification offering(sin offering), iniquities/transgressions/sins, jubilee.

(투고 일자: 2025년 2월 28일, 심사 일자: 2025년 3월 25일, 게재 확정 일자: 2025년 5월 14일)